

KOTRA, 쿠웨이트에서 플랜트 수주상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3월27일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시티 마리나호텔에서 쿠웨이트 등 중동의 관련기업들을 초청해 <한국-중동 기계·플랜트 수출 로드쇼>를 열었다.

3월25일 사우디 리야드에 이어 한국 중소기업의 중동 플랜트 시장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2번째로 마련된 행사에는 한국기업 23곳이 쿠웨이트와 인근 국가의 플랜트 발주기업들을 상대로 활발한 수출상담을 벌였다.

특히, KOTRA 바드다드 무역관에서 초청한 이라크 바그다드, 나자프, 카르발라 등에서 온 현지기업 관계자도 행사에 참석해 국내기업 진출에 큰 관심을 보였다.

쿠웨이트는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산유국으로 최근 몇년간 고유가로 벌어들인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석유 정제시설, 석유화학, 담수, 전력 관련 플랜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산업자원부 김영주 장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해외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KOTRA가 시장개척을 지원하려고 행사를 열었다”며 “중동 플랜트 시장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이 활발히 진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행사에 앞서 KOTRA는 쿠웨이트산업청(PAI)과 업무협조 약정을 맺고 무역정보 교환, 경제사절단 지원,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27>